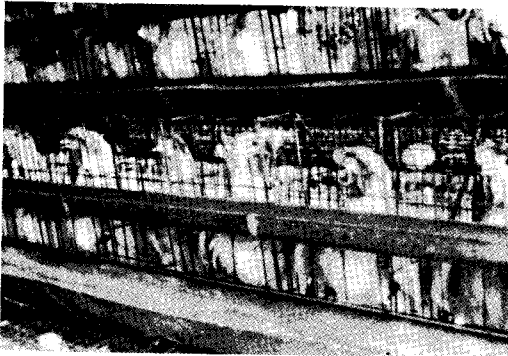


가을철 産卵鷄의 育成

〈편 집 부〉



가을은 기온이 적당하여 습도도 적고 봄병 아리가 걸리기 쉬운 콕시들횜 증 계두 류코싸이 토준등의 발생이 적기때문에 육추에 적절한 계절이다.

가을 병아리의 특징으로서는 성성숙에 도달할 시기에 일조시간이 길어져 난소발육이 조장되어 그때문에 성성숙이 빨라진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반면에 체중이 적을때에 산란이 시작되어 난중도 적어진다는 불리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성관리에 있어서 성성숙을 늦추어서 몸의 충실을 기하고 육성에서의 점등관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산란을 시작한 해의 가을에는 환우, 휴산을하고 산란의 지속일수가 짧으므로 산란기에 있어서의 점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계군갱신에 있어 대추를 도입할 때가 있지만 최근에는 자가육성이 좋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품질이 좋은 가을병아리의 육성과 산란능력 향상을 위해 육성관리상 유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표 1. 채란계의 생산형질에 미치는 부화시기의 영향

부화월일	성성숙 일령(일)	초산체 중(g)	10개월령 난중(g)	365일령 체중(g)	365일간 산란수
6월28일	177.6	1,820	52.6	1,836	240
7월28일	169.0	1,781	49.6	1,662	241
8월28일	163.8	1,727	51.5	1,694	234
9월28일	159.4	1,698	48.0	1,687	218
10월28일	164.6	1,707	49.7	1,825	242
11월28일	154.9	1,572	50.2	1,691	233
12월28일	156.7	1,566	51.8	1,809	236
1월28일	153.8	1,591	53.0	1,959	230
2월28일	159.1	1,532	55.4	2,013	254
3월28일	159.6	1,597	54.4	1,927	245
4월28일	162.2	1,608	53.6	1,940	256
5월28일	177.5	1,735	53.9	2,041	253

1. 밀사를 피한다.

육성기의 밀사는 병아리의 발육불량과 고루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그 영향이 육성후기에 들어가서 크게 나타나서 질병발생을 크게한다. 병아리의 육성에 있어서는 수수와 발육에 상응하는 바닥의 공간과 급이기 급수기의 적당한 수를 준비한다.

2. 체중의 컨트롤

능력이 높은 산란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골격이 튼튼하고 근육이 풍부한 체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병아리의 품종에 따라 표준체중이 정해있지만 10주령부터 20주령까지의 체중이 표준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면 산란개시까지는 그 차이를 회복할 수가 없고 능력에도 지장을 갖



게되므로 매월 1~2회 체중을 측정하여 표준과 비교 가을병아리는 특히 체중에 관심을 두는것이 중요하다.

3. 질병예방

질병발생은 육성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산란계가 된 후의 능력발휘에 큰 영향을 준다
 육추사와 기구의 물담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지역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항상 체체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곧 처치한다.

4. 사료의 합리적 급여

병아리의 주령에 맞추어 어린병아리, 중추대추사료를 주고 시판완전배합사료를 쓰면 성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단, 급여기간과 교체방법에 주의한다. 또 이동 예방주사 시는 비타민제 항생물질을 투여하여 스트레스를 막는다. 육성기의 제한급여에 의해서 닭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로 가을병아리에 대한 정량(제한) 급여에 의해 초산을 늦추어 초산난중을 늘린다는 시험성적도 나타나 있다.

5. 디비킹

표 2. 육성기에 있어서의 디비킹의 효과(0~16주령)

디 비 킹 실시시기	중체량 g	사료섭취량 g	육성율 %
첫모이전	1,241	6,235	97.8
4주령	1,228	6,149	98.7
8주령	1,239	6,184	98.9
12주령	1,251	6,299	100.0
대조구	1,283	6,431	96.9

디비킹을 잘하면 카니발리즘 방지에 좋을 뿐더러 사료도 절약된다. 또 닭이 압전해지고 발육의 우열이 적어진다. 반대로 디비킹을 잘못하면 육성을 저하시킨다.

6. 광선관리

성성속에 대하여 빛은 큰 영향을 준다. 육성기간 특히 중, 대추기에 있어 일조시간이 증가하면 성성속을 빠르게 하고, 반대로 일조시간을 감소시키면 성성속을 늦추게된다.

가을병아리는 전자에 속하므로 성성속이 빠르게 되어 초산체중과 초산난중이 적어지고 산란지속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육성중의 병아리에 광선관리를 해서 성성속을 억제하는 방법을 쓰고있다.

병아리에 대한 광선관리 방법은 다음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일조시간 일정법〉

이것은 자연일조시간을 제한 또는 증가하여 하루의 일조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부화시부터 18~22주령 까지의 기간중 하루의 일조시간을 6~9시간의 일정시간으로 하고 그 기간후는 13~17시간으로 한다. 이 방법은 무창제사가 아니면 실시가 곤란하다.

〈일조시간 점감법〉

하루의 일조시간을 부화시 16~24시간부터 점차 감소시켜 18~22주령까지는 6~9시간으로 하여 매주 15~40분 감소시켜 나간다. 18~22주령이후는 앞의 방법과 같이 일조시간을 증가시킨다.

개방계사에서 이 방법을 쓰려면 4~8월



부화한 병아리는 자연일조 만으로하고 그외 부화된 병아리는 예를들어 부화시부터 4주령은 일정하게 4~20주령의 기간에는 점감방법을 쓸 경우는 20주령시의 자연일조시간을 구하여 이날부터 소급해서 매주 15분씩 점등시간을 연장해 나가면 4주령의 일조시간은 자연일조+4시간이 된다.

부화로부터 4주간은 계속하고 이시간을 하루의 일조시간으로 하고 그 이후는 매주 15분씩 단축해가면 20주령에는 자연일조가 된다.

이상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병아리의 점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있다.

- (1) 육성기간중(8~18주령)은 하루의 일조시간을 증가시키면 안된다.
- (2) 일조시간의 감소율 1주간당 15분 이상 필요하다.
- (3) 점등및 소등은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
- (4) 조명도는 5룩스정도, 광원은 백색전구 또는 형광등으로 한다.

이상 병아리에 대한 점등법을 말했지만 이들 방법에 의해서 가을 병아리의 성성숙이 빨라지는 것을 조절하고 초산시의 소란을 방지할 수 있다.

더욱이 가을병아리의 성성숙 조절에 관한 광원의 영향은 닭의 계통에 따라, 감수성이

다르고 소위 외국병아리의 성성숙에 대한 광원의 효과가 국산병아리 보다 적다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7. 산란계사에서의 이동

병아리의 산란계사에서의 이동시기는 성계사 또는 성계케이지를 비울때와 관계가 있고 실제로는 여러가지 시기에 이동하고 있다.

계사의 이용효율과 병아리가 받는 스트레스등을 생각하여 대개 140일령에 이동하는 것이 많다. 이동시기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지만 지나치게 빠른 이동(55일령)은 병아리에 우열이 생겨 초산채중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보고가 있다. 또 산란계가 있는 성계사에 빨리 이동한때에는 성계에 대한 점등의 영향을 받아 산란계가 돼서부터 산란피크가 오르지 않았다는 예도 있다.

이동할 때에는 비오는 날을 피하고 적은 수수일때는 저녁때부터 밤중에 하면 닭에 대한 영향은 가볍다. 수수가 많을때에는 가능한한 오전중에 이동하고 저녁때까지는 새로운 장소에 익숙토록 한다.

이동하는 병아리는 주의해서 취급한다. 수송상자에 넣는 수수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따라 가감하여 무리해서는 안된다.

병아리의 발가락과 몸이 상자의 틈바구니에서 나와 끼우지 않도록 주의한다.